

한가위 보름달을 바라보며 올리는 기도

9월입니다. 아침녘에는 좀 선선한 바람이 불니다. 올 여름은 참으로 무덥고 끈적끈적한 그래서 더욱 힘든 때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꼭 날씨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4월말부터 아름답고 장엄하게 펼쳐졌던 소녀들의 촛불에서부터, 서울시청 광장과 온 주변 그리고 전국에 가득 찼던 우리 모두의 장엄한 촛불이 여름 무더위 속에서 느닷없이 폭도로 변질된 경찰 공권력에 의해 무자비하게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특히 전국 YMCA 이학영 사무총장 등 많은 회원들이 경찰의 폭력으로 크게 다쳤다는 보도를 듣고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YMCA 회원들은 오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앞장섰던 봉사자, 일꾼들이었는데 경찰이 이들에게 마저 무법적 폭력을 휘둘렀으니 일반 시민 학생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다원성의 포용과 아름다움

1990년 초 가톨릭대 신학대학원 세미나 과정에서 종교다원주의와 관련, 불교 등 이른바 비그리스도교 종교에 대

해 포용적 자세를 지녀야 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종교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 종교성의 외적 가시화와 제도적 체계가 바로 종교임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출생, 생일 잔치, 혼인, 장례 등 이 모든 것에 는 그 자체로 종교성이 담겨있습니다. 때문에 사람은 필연적으로 종교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해 겨울 저는 동료 사제들과 함께 설악산 신흥사를 들렀는데 그때가 마침 저녁 예불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불당에 들어가 뒤 옆자리에 자리 잡고 앉아 나름대로 저녁 기도를 함께 올렸습니다. 스님 서너 분이 불경을 외우면서 일어서고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20~30분 불공을 올리는데 스님 특유의 노래 같은 기도 소리가 참으로 푸근했습니다. 어린 시절 형형색색으로 둘러쳐 있던 절과 불당 분위기가 좀 어색하고 무섭기까지 했는데 그날 예불에서 저는 동심의 세계에 되돌아 온 듯한 마음으로 '아, 이것이 우리식의 고유한 전통과 기도, 우리 선조들의 열과 정신이 담긴 바로 그 염원이구나' 를 확인하면서 전통문화 종교를 새롭게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 후 저는 신학생들에게 시간이 허락하면 가능한 한 불교 예불에 함께 하여 타종교를 통해 종교심을 심화시키도록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권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를 비롯한 많은 스님들을 계속 만나면서 종교의 외피를 넘어 본질을 찾아가는 작업에 늘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얼, 민족정기를 찾아

저는 지금도 그때의 감동과 설레임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불이 지난달 27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장엄하게 펼쳐졌습니다. <범불교도 대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불교방송을 통해 대회를 지켜보면서 저는 신흥사 불당에서 체험했던 동심의 회귀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1,700여 년 불교역사는 우리 선조들의 삶과 길잡이였으며 바로 민족의 얼이었습니다.

더운 날씨임에도 예불을 위해 범복 정장으로 일어섰다가 꿇어 절하고 또 모두 함께 앉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시대를 고민하는 스님들과 불자들 모습에서 저는 만해 한용운 대사를 비롯한 순국선열들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체험이었습니다. 특히 오늘의 어둡고 답답한 이 현실에 우리 모두의 잘못된 선택과 결과에 대한 책임 통감과 함께 참회를 외친 수경스님의 말씀은 모두를 더욱 숙연케 했습니다.

한심한 언론, 한심한 검찰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여간첩 사건’이 발표되어 뉴스마다 보도되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1970~80년대 독재시절의 망령, 반공망령, 간첩망령이 되살아났나?” 하고 추정했는데 느닷없이 <범불교도 대회> 직전에 문화일보를 통해 이 내용이 처음 보도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검찰이 자청하여 기자회견을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는 “참, 한심한 검찰, 어이없는 공안동기관이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심하고 어이없는 일에 불의한 독재정권의 나팔수였던 언론이 한발 더 앞서 가담하고 있으니 부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로우실까 하며 상상해 보았습니다. 부처님뿐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는 하느님께서 “얘들아, 그런 짓은 이제 그만해라” 하실 것이고, 순국선열들과 인권, 민주, 자유 통일을 위한 선구자들과 희생자, 열사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 지금이 어느 때냐? 한심한 녀석들!” 하고 꾸짖으실 것 같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을 바라보며 진실과 정의, 자유와 평화를 꿈꾸며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할 때입니다.